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9/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0학년도 6월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올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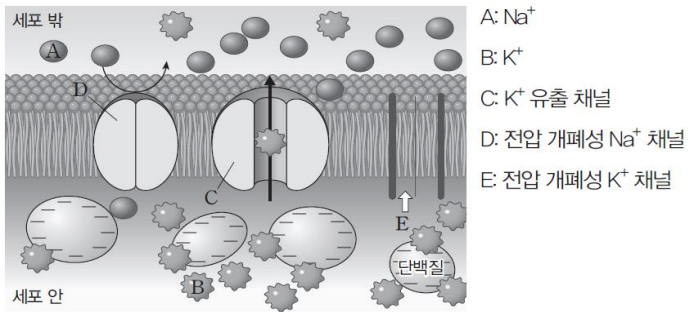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 존재(存在)하고
- ③ ㉢ : 보유(保有)하고
- ④ ㉣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 생성(生成)된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특 연계 275페이지  
[05~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어는 독소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복어 독은 신경 독소인 테트로도톡신(TTX)의 일종으로 복어의 독을 먹으면 신경 계통의 마비 증상이 일어나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TTX는 어떤 방식으로 독소로 작용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흥분 이동 과정과 이온 채널\*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의 휴지 전위\*와 관련된 중요한 이온은  $\text{Na}^+$ ,  $\text{K}^+$ 과 세포 안의 음이온이다. 세포 안과 밖의 전위차를 막전위라 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은 뉴런의 휴지기 상태의 막전위는  $-70\text{mV}$  정도이고,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의 전압이 낮다. 또한  $\text{Na}^+$ 은 세포 안보다 밖에서의 농도가 더 높고,  $\text{Na}^+$  채널을 통하여 세포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세포 안에 많은  $\text{K}^+$ 은 항상 열려 있는  $\text{K}^+$  유출 채널을 통해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음전하의 단백질들이 있어 (-) 전하의 분자가 세포 밖보다 안에 많아 세포 안의 전압이 낮다. 이

[A] 때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이 열리면서  $\text{Na}^+$ 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세포 안의 전기 음성이 줄어들다가, 세포 안팎의 전위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활동 전위가 유발된다. 그리고 활동 전위가 극대치에 이르러 세포 내 전압이 정점에 이르면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이 닫히면서  $\text{Na}^+$ 의 이동이 저해된다. 그리고 전압 개폐성  $\text{K}^+$  채널을 통해  $\text{K}^+$ 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활발히 유출되면서 세포 안의 전위는 낮아진다.  $\text{K}^+$ 이 과도하게 유출되어 세포 안의 전위가 세포 밖의 전위보다 낮아지는 과분극이 발생하면 전압 개폐성  $\text{K}^+$  채널이 닫히고 이온들이 재배치되면 다시 휴지 전위가 형성된다.

이러한 흥분의 이동은 한 개의 뉴런 내에서의 이동으로, 이를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 TTX는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세포막에 있는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에 달라붙어 채널을 통해 이온이 오가는 것을 차단 하여 활동 전위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활동 전위가 확보되지 못해,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감각이 상실되거나 신체 근육의 마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한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도 있는데, 이것은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한 개의 뉴런 내에서 의 흥분의 전도는 활동 전위에 의한 전기 화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시냅스를 거쳐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은 전기적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화학적 방식으로만 일어난다.

그런데 복어는 TTX라는 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복어는 어떻게 TTX 를 갖게 된 것일까? 독이 있는 동물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독을 얻는데, 자신들의 체내에서 합성하거나 독을 생산하는 다른 생물을 통해 독을 얻는다. 복어는 후자의 경우로 독성 물질을 내뿜는 미생물과 공생하며 독을 얻는데, 이는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관계를 맺어 가며 각자의 진화를 해가는 공진화가 ㉠ 일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어는 몸집도 작고, 특별한 방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단한 번식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험한 수중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복어는 TTX가 유발하는  $\text{Na}^+$  채널 저해를 막는 돌연변이를 우연히 갖게 되면서, TTX를 만들어 내는 박테리아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존에 필요한 독을 얻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독을 개발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캡사이신이다. 그런데 동물이 씨앗을 먹고, 여기저기로 이동하면서 배변을 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는 방식으로 식물이 생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일반적인 식물의 방식이기 때문에 캡사이신은 오히려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류는 캡사이신이 들어 있는 열매와 씨앗을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였고, 다른 동물에 비해 조류가 식물을 최소한으로 손상시키면서 씨앗을 먹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식물은 몸체의 피해는 줄이면서 씨앗을 가장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조류와 함께 진화해 온 것이다. 이처럼 복어와 박테리아, 조류와 캡사이신을 가진 식물과 같이 ㉡ 각 대상이 각각의 생존 조건에 맞게 서로 조합을 이뤄 진화하는 것은 공진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이온 채널: 이온이 세포 안팎을 출입하는 통로.
- \* 휴지 전위: 신경이나 근육이 흥분하지 않은 정지 상태에서 세포에 생기는 전위차.
- \* 역치: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계통의 마비 증상을 가져와 감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②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는 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식물의 선택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독을 가진 동물들은 체내에서 독을 합성하거나, 독이 있는 미생물과의 공생으로 독을 얻을 수 있다.
- ④ 캡사이신은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했지만, 번성하는 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 ⑤ 복어는 특정 이온 채널의 저해를 막는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 독성을 가진 박테리아에게 서식처를 공급하였다.

6.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휴지기에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의 전압이 낮고, 세포 밖의  $\text{Na}^+$ 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군.
- ②  $\text{Na}^+$ 이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을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겠군.
- ③ 휴지기에  $\text{K}^+$ 은  $\text{K}^+$  유출 채널을 통해  $\text{Na}^+$ 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군.
- ④ 활동 전위가 유발되어 세포 안의 전압이 정점에 이르면 열렸던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이 닫히겠군.
- ⑤ 전압 개폐성  $\text{K}^+$  채널이 열려서  $\text{K}^+$ 이 세포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가 된다면, 과분극을 막을 수 있겠군.

7.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TTX는 이온 채널 저해 활동을 통해 흥분의 전도를 방해하는데, 장수말벌이 갖고 있는 ㉠ 만다라톡신도 전압 개폐성 이온 채널을 막아 흥분의 전도를 방해한다. 한편 ㉡ 보툴리눔 독신(BTX)은 흥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는다. 이에 따라 흥분했던 뉴런의 흥분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 뉴런 내의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고, 근육의 기능이 억제되게 된다.

- ① ㉠은 전압 개폐성  $\text{Na}^+$  채널의 활동을 방해하여 근육의 반응에 이상이 생길 수 있겠군.
- ② ㉠은 흥분의 전도를 방해하여, 막전위의 변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겠군.
- ③ ㉡은 흥분의 전달을 방해하여, 흥분을 전달받을 다음 뉴런의 세포 내 전압이 정점에 이르지 못하겠군.
- ④ ㉡은 ㉠, ㉠과 달리 뉴런 사이의 흥분 이동이 아닌 뉴런 내부의 흥분 이동을 방해하겠군.
- ⑤ ㉡에 의해 일어나는 흥분은 화학적 방식으로, ㉠과 ㉠에 의해 일어나는 흥분은 전기 화학적 방식으로 일어나겠군.

8. ㉢의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같은 종류의 새이지만 서식지에 있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먹이를 먹기 편하도록 부리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 ② 특정 지역의 붉은개미가 다른 동물에 의해 개체의 크기가 큰 개미들이 밟혀 죽게 되면서, 그 개미 개체군의 평균 크기가 작게 변화하였다.
- ③ 땅다람쥐가 천적인 독수리의 출현을 주위 다람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고음을 내고 자신은 독수리에게 잡아먹혀 다른 개체들을 보호하였다.
- ④ 늦가을에 열매를 맺는 식물이 겉이 딱딱한 고단백 열매를 맺어 겨울을 나야 하는 동물들의 영양분이 되었고, 그 결과 동물들의 이는 단단해지고 식물은 동물들을 통해 번식을 하였다.
- ⑤ 새의 눈에 잘 띄는 색을 지닌 벌레가 주로 새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새대를 거듭할수록 새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을 지닌 벌레들의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9.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② 맛있는 음식을 보자 식욕이 일어났다.
- ③ 감기로 인해 오한과 두통이 일어났다.
- ④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갑자기 일어났다.
- ⑤ 그는 전화가 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